

분단국가들의 내전: 탈식민지화와 갈등의 냉전사

스티븐 휴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계의 네 지역, 즉 팔레스타인, 인도, 베트남, 한국 등의 분단의 역사는 복잡적·다원적 차원에서 조망해야 한다. 탈식민지화라는 지구 정치의 맥락은 분단에 연루된 국제적 행위자들의 양상과 분단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통합과 분리라는 국내 정치 엘리트 간의 상반된 정치 구상이 충돌하는 과정은 각 사례들이 분기하게 된 시점과 원인, 국내 공동체 간 분쟁의 격렬성 및 그 결과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분단을 냉전, 탈식민주의, 전후 체제의 결과이자 상호 강화하는 관계로 이해할 때, 분단이 네 지역에서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으며 역설적으로 각 지역의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분단이 신생 국가들 내부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격화하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는 종래의 분석들은 정체성 형성과 (특정 공동체 내부의) 결속 강화의 효과를 간과했다. 이것이 분단 장기화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양면성은 분단과 그에 수반된 무력 충돌 및 내전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력 사태와 참극이 실제로는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간의 모호함에서 유발된 공포와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되었다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전쟁 역시 이러한 새로운 분석들을 통해 바라보면, 단순히 냉전의 출발점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사의 연쇄작용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고리인 동시에, 전후 고리를 연결해주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건의 세계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촉발된 전쟁,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 재생산된 비극과 갈등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주제어 분단, 탈식민지화, 냉전, 공동체 갈등, 내전

I. 서론

1945년부터 1947년 사이에 네 지역에서 영토의 분할이 일어났다. 한국, 베트남, 인도, 팔레스타인이다. 맥락은 다르지만 각각의 분단은 지속적인 내전으로 이어졌고 대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결 상태다. 이 글의 목적은 분단의

역사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초기 분단사를 탈식민지화라는 지구 전체 그림에서 확인하고, 뒤이어 벌어진 파괴적 내전을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사례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분단의 비극적이고 참혹한 실패와 더불어 전후 초기에 일어난 정치적 합의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본 역사 연구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식민지 지위에서 출발했으며 민족주의자들이 그 식민구조와 권력관계를 전복하기 위해 전념했던 사례들을 다루며, 내전이 식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내전의 폭력은 전쟁에 휘말린 이들의 정체성을 재형성한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구식민지 지역에서 시민과 국가의 관계가 진화하고 변화하는 장기적인 동학의 특징을 만들어냈다. 또한 계속된 분쟁은 각국의 분할 상태를 지속시키는 관성도 만들어냈다. 그 관성은 앞서 벌어진 전쟁이 촉발한 지속적 사회 갈등에 대처하거나 그것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1945~1950년은 분단된 영토와 국가들의 수립에 뒤이어 수십 년간 벌어진 전쟁의 토대를 형성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II. 분단국의 식민지적·탈식민지적 유산

분단국들의 한 가지 근본적 공통점은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와 팔레스타인은 동일하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당연히 20세기 중반의 분단사는, 비록 그 양상은 서로 달랐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과 식민지 역사에 의해 결코 잇을 수 없는 모습으로 빚어졌다. 네 지역에서 모두 전후 폭력사태는 식민시대의 정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팔레스타인과 인도에서 공동체 간 분쟁(communal conflict)은 영국의 식민정책, 1917년 뉘푸어 선언과 연관된 합의 내용, 특히 1920년 초반 할리파 운동의 소멸 이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불관용과 관련한 긴장,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1937년 이후 격화된 공동체 간 갈등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었다. 영국의 분할통치정책과 1909년의 공동체적 우대(communal award), 즉 이슬람교도들이 식민지 주 의회에서 별도의 의석을 할당받은 정책 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역사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팔레

스타인과 인도공동체 내에서의 폭력은 오로지 영국의 정책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영국의 정책과 식민령 혹은 위임통치령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취한 정치적 입장 간의 상호작용이 만든 함수라고 보아야 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불통이 갈등을 가속화했다. 예를 들면, 아비 실라임(Avi Shlaim)은 시온주의 지도자였던 하임 바이츠만(Chaim Weizmann)과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e Herzl)의 정치 구상을 공격했다. 그들의 정착안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실제로, 영향력 있는 시온주의자였던 제에브 야보틴스키(Ze'ev Jabotinsky)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철의 장벽”(Shlaim, 2001: 12-16)을 세울 때에야 비로소 아랍인들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때에야 비로소 팔레스타인의 완고한 태도를 꺾고 협상의 가능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히틀러와 협력하기로 한 하즈 아민 알-후세이니(Haji Amin al-Hussayni)의 결정을 통해, 1930년대 후반에 이미 영국령 팔레스타인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정착민에 대한 팔레스타인 정치지도자들의 완고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파키스탄 초대 총독이었으며 아예샤 젤랄(Ayesha Jela)이 섬세한 정치가라고 묘사했던 무함마드 알리 진나(Mohammed Ali Jinnah)가 1940년 3월 무슬림 연맹 대표들에게 한 연설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는 화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에 진나는, 비록 그러한 정치적 타협이 어떤 모습의 헌법적 틀로서 나타날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인도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이 자주적이고 주권을 갖춘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우익 힌두교도이자 자발적 사회, 정치 조직이었던 민족의용단(RSS)의 수장 R.S. 골워커(R.S. Golwalker)는 나치 독일을 인도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여겼다. 1939년에 골워커는 “최상의 인종 자긍심이 [나치 독일에서] 발현되었다. 독일은 또한 뿌리까지 다른 인종과 문화가 하나로 통합된 전체로 동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보여주었으며, 이는 힌두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교훈이다.”(Khan, 2007: 52)라고 말했다. 민족의용단은 민병대를 설립하고 무슬림 적군에 대한 힌두교 군사 공격의 역사를 추종자들에게 설교했다. 그러면서 모국 인도를 수호했던 힌두교의 강력한 신들과 용맹한 전사들을 칭송했

다(Khan, 2007: 51). 한마디로 공동체 분쟁은 영국 관리들이 개시한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발생했지만, 영국 통치자들이 통제할 수도 없고 제한할 만한 자원을 동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자체적 추진력이 생겨났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과 베트남의 역사 또한 전후 갈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의 등장, 식민통치를 타파하려는 민족주의-공산주의자들의 노력, 그리고 1930년대 한국과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과 식민 지배자들 간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는 반란과 저항이 격렬한 탄압에 직면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운동을 공격하고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프랑스 형무소는 혁명 계획과 훈련의 훌륭한 장이 되어주었고, 프랑스에서 인민전선이 집권하게 되면서 베트남에서의 조직화 가능성도 열렸다. 1936~1937년간 식민 관리들은 1920년대 후반에 투옥된 공산주의 지도자 다수를 석방시켰다. 그 이후 트루옹 친(Truong Chinh), 팜 반 동(Pham Van Dong), 레 두안(Le Duan), 레 득 토(Le Duc Tho)가 가담했던 1930년의 응에안(Nghe Ahn) 농민봉기 시도가 있었다.

알렉산더 우드사이드에 따르면 “국제공산당은 1930년대 후반, 그때까지 무장봉기가 성취하지 못했던 목표를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정치적 방식으로 달성할 방법을 이례적으로 모색했지만, 그 노력이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 목표는 바로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성숙한 혁명의식을 키우는 것이었다.”(Woodside, 1976: 202) 조선공산당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고 지도자들은 투옥되었지만,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과 손잡았고, 나중에는 일본과 조선의 식민경찰에 의해 중일전쟁 기간 동안 중-소 접경지대로 쫓겨났다.

제2차 세계대전은 네 지역에서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끄는 민족주의자들이 ‘인도 철수(Quit India)’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전쟁 동안 영국에 협력하는 대가로 전후에 인도의 독립을 약속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인도의 영국 통치자들은 간디를 투옥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이어서 파업과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하지만 1944년의 벵갈 대기근과 인도 행정조직에서 인도인의 규모 확대, 인도군의 민족주의적 성격, 그리고 전쟁 말기 영국 국력의 과잉팽창은 영국

이 “요동치는 인도를 억누르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경제적 자원을 도저히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했다(Metcalf and Metcalf, 2002: 208-209).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 덕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정착민 정치조직인 유대인협회(Jewish Agency)를 동원할 구실이 생겼다. 이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독립된 분할 국가를 세우려 했던 데에 비해, 영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전체를 승계받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던, 훗날의 이스라엘 총리 메나헴 베긴(Menachem Begin)이 이끄는 무장단체 이르군(Irgun)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지배세력에 대항하는 베트남 정치 세력을 단합하기 위해 1941년 베트민을 결성했다. 1945년 일본의 식민주의적 식량정책 때문에 발생한 대규모의 기근 와중에 호치민은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북부 기지를 설립했다. 처참한 기근이 일본과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한반도 전체를 관철하는 인민위원회 소집에 기폭제가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신생 조선인민공화국 정치조직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다(Cummings, 1981: chapter 3).¹ 전쟁 직후,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혁명운동 세력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III. 강대국의 분할

1945년과 1947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강대국들은, 때로 국제연합(UN)의 지원 하에 네 지역의 영토를 분할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민족주의 열망을 달래려는 영국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합쳐진 결과 분할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랍인들이 영국의 분할 제안을 거절한 후,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가져갔고 1947년 11월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SCOP)가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분할 권고안을 제시했

¹ 베트남에 대해서는 Marr(1995: chapter 6-7)를 참조.

다. 한국에서는 전쟁 직후 미국이 먼저 소련에 제안한 비밀 외교 협약의 결과로 분단이 일어났다. 그리고 베트남은 강대국들에 의해 포츠담회의에서 분할되었고 16도선을 따라 영국과 중국이 임시로 점령하기로 승인했다. 베트남과 한국의 혁명은 식민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영토를 분할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이른바 4강(Big Four)의 전후 목표와 연관된 임시 합의에 불과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남아시아(즉, 인도)에서는 그 목표가 국가 간의 새로운 경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에 의한 베트남과 한국의 분할은 애초에는 임시방편이었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 분할은 분단에 대한 민족주의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훨씬 단기적인 결정과 추세의 결과물로 받아들여졌다. 당연히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분할 결정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전전(戰前) 식민지 역사가 전후의 분할로 곧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반면 대영제국과 피식민지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틀이자 식민지 유산의 밀접한 일부로서 분할이 일어났던 팔레스타인과 인도의 사례에서는 더 큰 역사적 연속성을 볼 수 있다.²

각각의 사례에서 분할의 성격에는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 분단과 내전의 역사는 일본 제국의 갑작스러운 퇴장과 미국의 점진적인 부상, 그리고 무엇보다 양극적 냉전 체제의 등장을 확연히 드러낸다. 반면 인도와 팔레스타인의 분할은 전후 세계의 초기에, 쇠락하는 대영제국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954년 이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입지를 재건하려던 프랑스의 시도가 실패하면서, 1945년 이후 유럽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쇠락하는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아시아에서의 분할과 중동 및 남아시아에서의 분할은 분단국가의 탈식민지화 과정에 참여한 국내의 행위자가 서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전자, 즉 동아시아의 경우 상반되는 정치 강령으로 맞서는 정치 엘리트 간에 국가를 통일하기 위한 시도가 나

² 여러 면에서 1922년 아일랜드의 분할이 인도의 분할에 선행이 되었던 반면, 1937년ピール 위원회(Peel Commission)는 1936~1939년 아랍 봉기의 발발에 대응하여 팔레스타인을 유대 영토와 팔레스타인 영토로 분할할 것을 권고했다.

타난 반면, 인도에서나 (그 정도는 더 약했지만) 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서는 선도적인 정치 엘리트 집단, 특히 인도 무슬림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분할을 강력하게 지지했다.³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분단과 내전은 두 가지 기본적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인들은 분할을 거부하고 예전 위임통치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한 반면, 아랍 동맹국들은 각자의 영토적 야심을 좇았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사례는 좀 더 복잡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토 분할 전 유대인협회의 비밀 외교에서, 그리고 (아랍어로 재앙을 의미하는 나크바로 알려진) 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유대인협회가 사실상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는 점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요 행위자는 골다 메이어(Golda Meir)와 전전 비밀협상을 벌이고, 1967년의 6일 전쟁 때까지 요르단 강 서안을 지배했던 요르단이었다(Shlaim, 1988: chapters 4-5).

하지만 서로 짝을 지어놓은 사례들의 유사성은 그들 간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가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도와 팔레스타인의 탈식민지화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무슬림 인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각 영토 내에서 이 이슬람 공동체가 점하고 있던 위치는 구조적으로 정반대였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무슬림이 다수였던 반면, 인도에서는 소수였다. 이런 점에서 인도의 무슬림과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다수였던 힌두교도와 (팔레스타인) 무슬림에 대해 비슷한 보장을 얻어내려고 했다. 즉, 자신만의 국가를 추구했다. 팔레스타인 정치인들은 분할에 적대적이었고 인도에서도 국민회의당은 단일한 독립국을 유지하는 쪽을 선호했다. 인도에서는 국민회의당의 지도부가 (비록 당 내부나 다른 당에서는 반대하기도 했지만) 무슬림의 권리에 계속 온정적이었던 반면,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유대인이 영토 내에 존재한다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최근에 정착한 정주민들이었고, 따라서 팔레스타인 인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땅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 혹은 침입자였다. 물론 그 입장은 이해할 만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입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한 상황에

³ 유대인협회는 1946년 독립 전략의 일환으로 분할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영국 세력에 대항했던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기도 했다.

서는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독일과 일본은 그들이 거주하고 식민화했던 영토에서 축출당했지만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영국의 승리는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정주를 확고히 했다. 영국의 승리는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 압력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고, 유럽은 홀로코스트의 기억 때문에 시온주의에 동정적인 여론으로 기울어졌다.

팔레스타인과 인도 사례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영국이 인도에서는 협상을 통해 영토를 분할했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외교적 수단이 매우 갈등적이고 복잡하리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영국 지도부가 사실상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을 방기해버렸다는 점이다.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려는 두 개의 영국 위원회와 외상 어니스트 베빈(Ernest Bevin)의 시도가 불발로 끝나자,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1947년 2월 국제연합에 회부한다.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는 위임통치령의 상황을 조사했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인도주의적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의 모든 전후 합의에서 팔레스타인의 이익은 대체로 무시해버렸다. 무엇보다도 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트란스요르단의 대표들은 분할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의 외상 어니스트 베빈에게 전달했던 압둘라 국왕의 입장은 분할만이 팔레스타인-유대 갈등의 유일한 해법이며 트란스요르단도, 위임통치령의 일부를 아랍 관할로 두는 제안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그 방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Shlaim, 1988: 93).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임통치령의 분할을 권고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은 인도의 경우에는 없었던 팔레스타인 문제의 국제화를 보여주며, 이는 한국에서의 사태 전개와 유사점을 띤다.

한국 문제를 유엔에서 국제화하는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이, 한국을 둘로 나누고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내분상황을 일으키는 새로운 정치판이 형성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과 미국은 국제연합을 통해 영국의 위임통치령(팔레스타인)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재촉하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분할을 둘러싼 폭력이 분쟁에 기름을 끼얹었고 그 분쟁은 대부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의 영토분할이 추가로 일어남으로써 지금까지도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폭력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인도에서는 후일 파

키스탄이 되는 무슬림 다수 지역을 인도에서 떼어냄으로써 1947년 8월에 대영 제국을 분할하겠다는 마운트배튼(Mountbatten) 백작의 1947년 6월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북부의 벵갈과 편잡을 분할하라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요구로 이어졌다. 가넨드라 판데(Gyanendra Pandey)가 지적했듯이 분할을 요청하는 이슬람 지도자들의 청원이 인도 제국을 추가로 분할해달라는 여러 경쟁적 요구를 조장했다. 그는 1947년 인도에 사실상 3개의 분할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진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벵갈과 편잡에서 힌두교가 다수인 지역을 인도가 보유하게 해달라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그해 늦여름에 대영제국을 분할하겠다는 영국의 결정이었다(Pandey, 2001: chapter 2). 하지만 분할은 1947년 이후까지도 이어져 1948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잠무와 카슈미르가 다시 분할되었다.

1971년에는 동파키스탄이 연방에서 탈퇴함으로써 인도아대륙은 또 다른 분단을 경험했다. 다시 내전이 터졌고 파키스탄은 이어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졌지만 동벵갈 민족주의자들은 신생 방글라데시의 건국에 도움을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1948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은 1967년과 1973년의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결과로 계속 변동했다.

베트남에서는 1954년의 제네바 합의가 나라를 17도선에서 분할했지만,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가 합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뒤이어 갈등이 고조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953년 한국의 휴전협정은 한반도가 다시 분할됨을 뜻했고, 이 분단상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분단을 지속적 갈등과 분단을 수반하는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최초의 분할 결정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동일한 영토를 여러 차례 분할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역학은 전후 초기 분할 협정들의 불완정성과 모순성에 바탕을 이룬다. 분할은 흔히 강대국들에게는 정치적인 미봉책 혹은 정치적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여겨졌지만, 보다 큰 정치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갈등을 봉합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었다.

IV. 분단, 폭력, 난민

전후 초기 인도와 팔레스타인에서는 분할 직전 몇 달과 직후에 공동체 폭력 사태가 절정에 이르렀다. 분할과 관련한 폭력사태는 주민들을 거주하던 마을과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두 사례에서 목표는 기존의 정착촌을 제거하고 폭력에 가담한 다양한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운 정착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인도에서, 특히 편잡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 힌두교도, 시크교도, 이슬람교도가 모두 추방당했으며,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랍인들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병사들도 유대인들을 축출했는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별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분단시기에 폭력사태가 꾸준히 지속되었던 편잡 주에서는 3개의 공동체, 즉 시크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서로 싸우는 양상으로 공동체 폭력이 전개되었다. 편잡 중심지에는 주로 시크교도들이 거주했지만 래드클리프 위원회(Radcliffe commission)가 바라던 대로 영토를 분할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했다. 시크 지도자들은 분할 마감시한에 앞서, 영토가 종교와 사회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지지 않으면 무슬림에 대해 폭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크교도의 지도자였던 마스터 타라 싱(Master Tara Singh)은 “우리가 무슬림을 쫓아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회고한다(Brass, 2003: 77). 편잡에서 대부분의 폭력사태는 때로 전직 병사들로 패거리를 이룬 시크교도에 의해 일어났지만 힌두교도와 무슬림들 또한 추측건대 20만 명이 사망하게 된 살육에 가담했다.

인도 북부 전역에 걸쳐 일어난 폭력, 특히 편잡과 벵갈 주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강제 이주를 일으켰다. 분할 기간 전후로 천만 명에서 1,200만 명이 신생국이었던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도피했다. 지난 수십년간 여러 연구를 통해 모든 공동체의 여성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징벌로서 민병대에 의해 어떻게 폭행, 강간, 살해당했는지 상세히 밝혀졌다. 납치당한 여성들은 대개 강제로 개종당했고, 때로는 납치범과 강제로 결혼했다. 대체로 폭력이 계획적이었고 집단적인 동원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들이 드러났

다. ‘분단 폭력’은 “자생적”이 아니라 고의적이었고, 상부의 지시가 있었으며, 대개는 지방과 도시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분쟁에 바탕을 두고 일어났다.⁴

따라서 분단 폭력의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뿌리는 “종교 폭력”으로 단순화되는 사건들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모든 갈등의 형성에 종파 이외의 요소들도 일조했음을 보여준다. 땅에 대한 이 전쟁에서 영토 지배가 핵심이었다. 그리고 분할, 특히 분할의 급작스러움과 지도나 국가 지원의 부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키웠다. 폴 브래스(Paul Brass)는 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분단 폭력’의 기저에 있는 모호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때로 다른 공동체가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납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자기 손으로 여성이나 아이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살했다. 또 다른 경우, 이런 순교는 분단 이후의 공동체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고(Brass, 2000: 90), 그럼으로써 희생양으로서의 기억에 기반을 둔 [새로운] 폭력 문화를 만들고 유지했다. 이런 점에서 폭력은 합리적 방식으로 대처하기 힘든 관성을 촉발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1947년 12월부터 1948년 5월 중순까지 남아시아(인도)의 상황에 가장 근접했다. 국제연합의 분할 일자가 가까워지면서 양측의 공동체 분쟁이 확산되고 커졌다. 1948년 봄에 유대의 군사적 성공이 잇따르면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몇 차례 걸쳐 국경을 넘었다. 약 38만 명이 트란스요르단(요르단), 시리아, 레바논뿐만 아니라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 지구로 도피했다. 1948년 봄 유대군 공세의 성공으로 벤 구리온(Ben Gurion)은 5월 14일 신생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고, 아랍군에 대한 공세가 더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고의적으로 국제연합 분할 국경선을 언급하지 않았다(Shlaim, 2001: 33).

유대인의 공격은 아랍 국가들이 외부에서 개입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이집트, 레바논, 트란스요르단, 이라크, 시리아가 병력을 보냈고, 아랍 연맹에 참가해서 팔레스타인 전사들과 합류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아랍 군사의 개입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전투가 단기간 동안 재개되었던 1948년 7월 동안 팔레스타인 인들의 대탈출이 또 다시 벌어졌다. 전쟁 후반부였던 1948년 10월부터

⁴ 예를 들면 Butalia(2000)를 참고.

1949년 1월 초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지배하던 네게프 사막을 점령했고, 결과적으로 15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가자지구에 정착하게 되었다. 전쟁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랍 군대를 숫적으로 압도했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아랍군이 3만 명이었던 데 비해 이스라엘군은 9만 5천 명에 이르렀다.

나크바(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를 이해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마을 중 하나가 데이르 야신(Deir Yassin)이다. 이 마을에 대한 유대군의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1948년 늦겨울과 봄에 있었던 공세에 이어 유대군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협박용으로 설계되었다. 극단주의 지하 군사조직이던 스텐 갱(Stern Gang)과 이르군이 공격을 이끌었지만 작전은 예루살렘의 하가나(Haganah) 군 수뇌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공격 계획 단계에서 스텐 갱의 조직원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아랍 마을 한 곳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자고 제안했다(Gelber, 2001: 309). 하지만 이르군 지도자였던 메나헴 베긴(Manachem Begin)은 그 계획을 거부했고 병사들은 데이르 야신 마을에서 민간인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실제로는 공격 중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죽었고, 공세 이후 공격군이 강간을 저질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일했던 영국 경찰관은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러 여학생이 강간당한다음 도륙당했다. ... 영아들도 난도질당해 죽었다.”

어떤 논객들은 이런 비난을 일축했다. 베긴은 후일 “그런 사건을 떠벌이는 선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인들에게 “공황”을 일으킴으로써 “우리를 도왔으며” 데이르 야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데이르 야신에 관해 조직된 사실들이 전장에서 결정적 승리로 가는 길을 여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 모든 유대 병력은 파죽지세로 하이파까지 진격했다. 아랍인들은 ‘데이르 야신!’을 외치면서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다”고 주장했다(Hasso, 2000: 491-510).

데이르 야신은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이 마을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자는 팔레스타인-유대 협약이 조인된 장소로서, 공동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기간에 공동체 간 협력과 상호 독립 인정의 상징이었다. 네이션 크리스탈(Nathan Krystal)이 언급했듯이 데이르 야신은 “유대 예루살렘과 부전 조약을 맺은 여러 아랍 마을 중 하나”였다(Krystal, 1998: 10). 따라서

이 마을의 파괴는 공동체 폭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다. 데이르 야신은 내전의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 폭력을 통한 중도파 제거의 사례다. 이 중도파는 이 시기 탈식민지화가 진행중이었거나 구식민지였던 세계에서 일어났던 분쟁에 대안사(代案史) 또는 반-내러티브(anti-narratives)의 잃어버린 기회가 있었다는 증거다.

남아시아와 중동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강대국의 개입과 얽혀 벌어진 내전들은 수천만 명이 전쟁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많은 경우, 마을 주민들은 국내 폭력사태 혹은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결과로 살해당하거나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1945~1950년간의 분단과 국내 소요로 인해 남북의 주민들이 38선의 반대편 혹은 일본으로 넘어가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았다. 1954년 베트남의 17도선 분할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고 많은 가톨릭교도들은 북베트남에서 도망쳐 응오 딘 디엠(Ngo Dinh Diem) 행정부에서 직업을 구했다.

네 가지 사례연구에서, 팔레스타인 인들은 유일하게 국가가 없는 난민이었고, 대부분은 전쟁을 피해 중동의 여러 지역에 있던 국제연합 관리하의 구호 캠프로 도망쳤다. 동아시아에서도 난민 일부는 자기 나라 영토 밖, 특히 중국에서 원조를 구했다. 전쟁 동안 만주 지역 한국인들의 역사를 보면 한국 국경 밖 난민들 삶의 인간적 면모를 볼 수 있다. 물론 난민 이동의 국제화는 분단사와 연관된 중요한 주제이며, 국제 난민 “레짐”이 공산권 내부, 나아가 유럽 밖에 여전히 남아 있던 난민 인구에 대응할 때 나타나는 한계점뿐만 아니라, 레짐의 역학에 대한 통찰도 제공해준다.

국제연합난민구호기구(UNRWA)는 1949년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설되었다. 미국은 국제연합한국민사원조위원회(UNCACK)를 책임지기로 했다. UNRWA는 유럽 바깥의 난민들에게 서구 기반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국제연합재활구호기구(UNRRA)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기구였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UN난민고등위원회가 1951년 창설될 이래 1960년대 후반까지 난민에 대한 국제연합의 정의 때문에 고등위원회는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UNRWA는 (1951년에 설립된) UNHCR의 업무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지구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했다. 마침내 1967년,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난민의 정의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1951년 협약의 개정이 일어났다. 동시에 UNCACK의 역사는 국제연합 난민 원조에 냉전적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UNCACK의 활동은 주로 미군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공산세계의 난민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았으며 이들에게는 공산권에서만 원조가 왔다. 더욱이 UNCACK 활동은 미군 UNCACK 병사들이 금지구역 경계를 넘은 한국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발포하기도 했던, 난민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숨기기도 했다.

남아시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영국의 정책이 갈등을 고조시켰지만, 정작 영국은 폭력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는 베트남과 한국의 사례와는 크게 대조되는데, 이곳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이 1945년 분할선을 수호, 방어, 연장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네 사례 모두에서 민간인들이 사회 분쟁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었다. 한국에서는 계급의 적으로 간주된 사람들에게 대한 북한에서의 처형, 남한에서의 정치범 살해, 남한의 북한 점령, 미국의 공중 폭격 등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폭력과 총력전의 논리를 증명한다.⁵ 동남아시아에서는 소작농들의 재정착촌 강제 조직,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집중 폭격 작전, 고엽제의 사용이 사회를 초토화했다.

V. 혁명 한국과 베트남

1945년 이후 남베트남과 남한의 혁명은 서구 열강과 국내 반공주의 동맹이 주도한 반혁명 점령 정책의 공격을 받았다. 두 나라의 남반부(南半部)에서 서구 군대는 혁명가들이 세워놓은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파괴했으며 그 자리에 반공, 반(半)식민 혹은 식민 통치체제를 세웠다. 따라서 중국의 동아시아 주변부(한국과 베트남)에서 시작된 내전들은 서구 군사의 도래에 의해 상당 부분 형성되었다. 남부에 여전히 혁명세력이 있기는 했지만, 1946~1947년경이 되면 한국과 베트남

⁵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에 대한 논의로는 Cumings(2010: chapter 7)를 참고.

의 주요 혁명인사들은 북쪽에 있었고, 이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의 궁극적인 통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두 지역의 역사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소련의 점령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김일성이 북한 노동당의 지도자로 떠오른 반면,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중국혁명의 성공과 1950년대 초반 베트남 정부를 인정하기로 한 중-소의 결정으로 해외 물자 지원을 받기 전까지 모든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할하고 있었다. 1948년 말에 “새롭게” 태어난 북한과 달리,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45년부터 베트남 혁명의 원천이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연속성이 베트남 전체에 혁명의 정당성과 영감의 강력한 원천이 되었다.

베트남이 남부와 북부를 가리지 않고 시골에서 입지를 유지하고 확대하면서 프랑스의 식민지전쟁은 지속되던 베트남 혁명과 중첩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베트남이 농촌지역을 지배했던 반면, 프랑스의 식민정부와 베트남의 반공세력은 주요 도시에서 권력을 유지했다.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혁명은 1945년 강대국 간 분할의 의미를 사실상 문자 그대로 지워버렸다. 이는 북한이 1950년 군사 공세를 통해 시도했던 것이기도 했다. 더욱이 1951년이 되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여러 면에서 서로 얽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두 분쟁에 중국이 모두 개입했고 무기를 공급했는데, 그중 다수는 미국제였고 한국전쟁에서 베트남 전선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한국과 베트남에서 분단의 영향을 지우고 나라를 통일하려는 시도는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한국에서의 휴전협정과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협상은, 1945년 최초의 분할선과 미묘하게 다르기는 했지만, 사실상 나라를 다시 분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2차 분할은 서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소련과 중국이 1953년이 되면서 서구와 긴장을 완화하려 했고, 스탈린 사후 소련이 공산주의 동맹이 마주하고 있는 반공연합과 협상하여 평화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평화 구상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과 한국의 지도부는 동맹국의 이런 압력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 전쟁 중 남한에서 반란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의 좌절, 그리고 1950년대 초반 남한에서 빨치산 운동의 연이은 분쇄로 인해, 북한 지도부는 1953년 북한이 한국 정전협정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나라를 다시 일시적으로 분할하는 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반면

베트민은 1954년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에서 프랑스 제국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독립된 통일 베트남에 반대하는 열강들의 연횡이 나라를 17도선에서 분할해버렸다. 한국과 베트남의 분단은 각각 1954년 봄과 여름의 제네바 회의에서 확정되고 협상되었다.

이른바 한국전쟁의 교훈이라고 할 만한 것이 1970년대까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을 형성했지만 두 전쟁의 역사는 1954년 이후 상당히 달라졌다. 두 전쟁의 상이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다른 결과를 형성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1965년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미국과 베트남 공화국의 결정, 1960년대와 1970년대 인도차이나 전쟁에 의해 일어난 미국 국내 정치의 동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차이, 그로 인해 베트남민주공화국이 호치민 루트를 따라 민족해방전선(NLF)과 베트남 공에게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던 능력, 그리고 아마도 1950년대 초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했던 것에 비해 더 끔찍하기는 했지만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북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폭격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54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의 분쟁이 분기하게 된 데에는 최소한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있었으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번째 10년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베트남의 반식민적 혁명세력은 남베트남에서 여전히 강력했지만 남한에서는 미군 점령군과 이승만의 안보국가가 1947~1948년까지 국내 정치에서 혁명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다. 한국은 식민통치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시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결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분단, 혁명의 정치적 중심의 북방 이동, 남한에서 조선공산당의 불법화, 박헌영의 평양으로의 도피, 제주 봉기에 이은 노동자와 소작농 혁명의 진압, 1948년 국가보안법의 통과, 그리고 남한군 반란세력의 제거와 같은 모든 사건이 권위주의적 반공 정권을 규합하는 이승만의 장기적인 능력을 형성해주었다.

1950년대에는 미국과 서양의 NGO, 특히 기독교 단체들로부터의 지원이 남한에서 확고한 반공 냉전 합의를 굳히는 데에 일조했다. 반면 1946년 이후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베트남에서 혁명의 추진력을 유지 혹은 강화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 1945~1950년에 같은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두 나라 간의 장기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국은 오늘날에도 여

전히 분단된 반면, 베트남은 부분적으로는 전후 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에 1975년에 통일을 할 수 있었다.

VI. 결론

한국전쟁이 일반적으로 냉전의 등장을 알리는 사례연구로 취급되며 그런 취급이 옳바르기는 하지만, 이 글은 한국의 경험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대에 폭력적인 사회적·정치적 격변을 경험했던 다른 분단 지역들의 맥락이라는 보다 넓은 비교론적 기반에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논의한 네 가지 사례연구는 탈식민지화라는 보다 넓은 역사적 과정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기도 하다. 이 역사적 고찰은 분단국가들의 내전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탈식민지화라는 지구사의 한 가지 스펙트럼의 일부로서 전쟁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이 특정한 탈식민지화의 흐름을 전후 초기라는 시대 속에서 파악하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의 주요한 특징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10년이 끝날 무렵에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분단국가들의 전후 내전을 이해하는데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대가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분석틀을 확장시켜 분단국들이 연루된 20세기 전반의 다른 분쟁들을 포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이 분석은 전후 국제체제에서 새롭게 태어난 국가들의 권력구조 내에서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한계와 더불어 1945년 이후 독립의 가능성에 대해 각 지역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폭력으로 가는 경로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전제한다. 분단국가를 형성하려고 주도한 국내 지도자들과 분단을 극복하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경계선을 지워버리기 위한 전략을 구상했던 지도자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분류법은 아니며 한 유형이 다른 유형 내의 경향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역학이 작용한다. 갈등과 폭력의 역사는 지역적·전국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일어났으며 대개는 정치적 영향권을 독자적이고 배타적으로 형성하려는 목표로, 가끔은 여러 공동체를 서로 격리시키기 위해, 또 때로는 적이라고 보는 자들의 영토

를 통합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벌어졌다. 우리는 국내 폭력을 분리와 통합에 수반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과정 간의 상호작용과 긴장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분단 자체가 불가피하게 지속적인 내전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고찰한 네 가지 사례 중에 오직 베트남만이 식민주의와 분단 그리고 현대세계의 지속적인 국내 폭력이라는 역사적 짐을 궁극적으로 해소했듯이, 이 긴장은 너무나도 깨기 힘든 순환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고일: 2015년 5월 19일 | 심사일: 2015년 6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30일

참고문헌

- Brass, Paul. 2003. "The Partition of India and Retributive Genocide in the Punjab, 1946~47: Means, Methods, and Purposes."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5(1), 71-101.
- Butalia, Urvashi. 2000. *The Other Side of Silence: Voices from the Partition of Ind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umings, Bruce.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The Korea War: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 Gelber, Yoav. 2001. *Palestine 1948*. Eastbourne: Sussex Academic Press.
- Hasso, Frances S. 2000. "Modernity and Gender in Arab Accounts of the 1948 and 1967 Defeats."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32(4), 491-510.
- Khan, Yashin. 2007. *The Great Partition: The Making of India and Pakistan*. New Delhi: Viking.
- Krystall, Nathan. 1998. "The De-Arabization of West Jerusalem 1947~50."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27(2, Winter), 5-22.
- Marr, David G. 1995. *Vietnam: 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etcalf, Barbara D. and Thomas R. Metcalf. 2002. *A Concise History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ndey, Gyanendra. 2001. *Remembering Partition: Violence, Nationalism and History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laim, Avi. 1988. *Collusion Across the Jordan: King Abdullab, the Zionist Movement and the Partition of Palesti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The Iron Wall: Israel and the Arab World*. New York: W.W. Norton.
- Woodside, Alexander. 1976. *Community and Revolution in Modern Vietnam*. Boston: Houghton Mifflin.

Abstract

The Civil Wars of Partitioned States: Cold War Histories of Decolonization and Conflict

Steven Hugh Le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he history of the partitioned territories that began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World War II, and which mostly continues to this date, can be situated in world history only when it is viewed from the international and local levels; on the one hand, the patterns of international actors involved in the partition process and the interaction among the partitions are to be understood solely by grasping the issue in the context of world politics, namely decolonization; on the other hand, tracing the process of clashes between opposing political agendas among domestic political elites manifested in the form of incorporation and separation is the means to capture the varying consequences and the intensity of the communal conflict among the cases.

Moreover, seeing the partitions as one of the mutual amplifiers as well as a result of the Cold War, decolonization and the post-war system is a good way to explain why the partitions lingered for such an extended period of time in the four territories and how, though ironically, they contributed to maintaining an insecure equilibrium in each of the regions.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identity formation and its consolidation (of a particular community within the territory) clearly existed, which has been largely disregarded by the conventional framework highlighting the divisive and aggrieving role of the partition within the newly created states. Also significant is

the fact that they may be one, if not the only, contributing factor to the protraction of the partitioned state. This double-sidedness presents itself, albeit indirectly, in a series of violence and atrocities committed during the partition process as well as the consequent armed conflict and civil war, which were intensified by the fear and uncertainty aroused by an ambiguity between potential assailants and potential victims. With this new analytical framework,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War surfaces not only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ld War, but also as a component in the chain reaction of world history, an indispensable link connecting other links coming before and after itself. Above all, this linking is a necessary task not only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e global context of a particular event, but also with a view to pinpointing the root cause of the tragedy and conflict reproduced once through partition violence and again through a series of ensuing incidents.

Keywords | partition, decolonization, the Cold War, communal conflict, civil war

